

2022 문화계 결산 <4> 문화재

‘탈춤’ 유네스코 유산 지정...순천 선암사 일주문 보물로

‘웃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여수 향일암 일원은 명승 등록
전남대 도서관 ‘상교정보자비도량참법’ 6권 보물 지정

올해는 풍자와 해학이 담긴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종합예술로 꼽히는 우리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모두 포괄하는 장르다.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풍자성과 유쾌함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22개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통영오광대를 비롯해 양주별산대놀이,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탈춤은 국내 무형유산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부터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됐다. 이번에 등재된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던 전통놀이인 ‘웃놀이’는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웃놀이는 웃가락 4개를 던져 웃판의 모든 말을 묵적지에 들어오게 하는 놀이로 남녀 노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정월 초나 정월대보름에 많이 즐겼다. 웃놀이 유래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는 웃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 승부를 겨루는 저포놀이가 나온다. 조선 초기에는 웃놀이에 해당하는 ‘사희’라는 용어가 쓰였다. 조선 중후기에는 ‘척사(擲擲)’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특히 웃가락은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웃놀이가 이뤄지고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있다. 문화적 포용성과 깊은 연관이 되는 대목이다. 조선시대 있던 전라과 병화에서도 소설을 면했던 순천 선암사 일주문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됐다. 일주문은 사찰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사찰이 시작되는 영역을 표시한다. 일반적인 문은 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주문은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암사 일주문은 조계문(曹溪門)으로도 불린다. 1540년 중창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건물 모서리에 추녀가 없는 게 특징이다. 맞배지붕과 공포(하중을 받치기 위해 대는 부재)가 여러 개인다. 포식 건물 양식을 띤다.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절 내에서 유일하게 소설을 면한 건축물이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向日庵) 일원도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등록됐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이름의 향일암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여수시 돌산읍 금오산에 있는 향일암은 양양 낙산사와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로 알려져 있다. 기암괴석 절벽에 세워진 암자는 지형적 형상이 이채롭다. 거북이가 경전을 등에 지고 남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과 거북의 등껍질 무늬를 닮은 암석, 인근의 울창한 숲은 빼어난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고흥 여산승씨 상충 정려각을 비롯해 강진 해남승씨 추원당과 영모당은 보물로 승격됐다. 고흥 여산승씨 상충 정려각은 여산승씨 출신 승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웃놀이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던 전통 놀이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대답과 그의 아들 송심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전공을 세우고 순절한 것을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내려준 정려다. 1704년 정려가 건립 이후 몇 차례의 수리와 정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강진 해남승씨 추원당은 해남승씨 10세 운사보와 11세 윤경 부자를 모시는 재실이다. 1649년 윤선도의 주도로 창건된 이래 여러 번 중수를 거쳤다.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건축기법을 보여준다. 영모당은 해남승씨 중시조인 8세 윤광전과 9세 윤단봉, 윤단학 형제 등 3위를 모신 건물로 18세기 지

방 건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전남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공민왕 당시 간행된 불교의식집 ‘상교정보자비도량참법’ 6권도 보물로 지정됐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다른 판본들과 달리 종이를 절첩장 형태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상교정보자비도량참법’은 중국 양나라 무제가 죽은 황후의 극락왕생을 위해 편찬하게 한 ‘자비도량참법’을 원나라 때 교정해 10권으로 간행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숙왕(1316년)과 공민왕(1352년) 때 간행된 고려본을 비롯해 조선 세조,

성종 때 간행된 간경도감본 등 10여 종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 희귀본이다. 전남대 소장본은 고려 공민왕 때 간행된 것으로 전체 10권 중 권6 1책만이 남아 있다. 보성의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도 국가문화재로 등록돼 눈길을 끌었다. 합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구들장 채석 산지로 알려진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는 1930년대부터 1980년 초까지 채석이 이루어졌고 전국 생산량의 70%를 담당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술축제 서막 올랐다...광주비엔날레 D-100 선포

성공개최 격려사·1호입장권 전달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주제
2023년 4월 7일~7월 9일 개최



28일 광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D-100일 선포식에 강기정 광주시장, 박양우 비엔날레 대표이사 등 참석내빈들이 성공기원 메시지를 작성하여 GB로고 조형물에 부착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와 (재)광주비엔날레는 28일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 비엔날레 개막 D-100 선포 및 1호 입장권 전달식’을 열었다. 제 14회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예술공간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비엔날레 이사진, 지역 내 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광주비엔날레 작가 스튜디오 탐방 참여 작가 등이 참석해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을 기원했다. 선포식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추진경과 보고,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개막 D-100 선언, 성공개최 격려사, 1호 입장권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의 응원 퍼포먼스, 성공기원 메시지 비엔날레 로고 조형물에 부착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성공적인 비엔날레 개막을 위해 (재)광주비엔날

레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매달 각 분야 전문가 멘토와의 기획회의를 거쳐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들이 제작한 결과물은 (재)광주비엔날레 웹사이트, 뉴스레터, 유튜브, 재단 및 서포터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외지 관람객 방면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 숙박업체와 연계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유희데이인 광주, 광주 유평 부티크 호텔&레지던시, A.C.C

DESIGN 호텔,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등의 숙박객에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일권 입장권 등을 만들었다. 입장권은 개막 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개막 전인 내년 4월 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예약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문화재청, 별서정원 9곳 역사성 검토

광주 환벽당·담양 명옥헌·화순 임대정 등 소유자·명칭 유래 등 고증

광주 환벽당 원림 일원은 그동안 사촌(沙村) 김윤제(1501~1572)가 노년에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부친 김후의 정자를 김윤제가 증수에 건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 별서정원에 대한 역사성 검토를 거친 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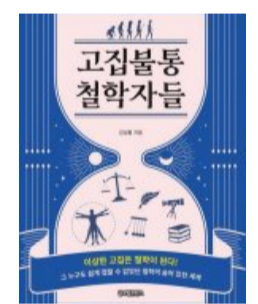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환벽당을 비롯해 담양 명옥헌 원림 등 9개소 정원을 만든 이와 소유자, 명칭의 유래 등을 고증했다. 담양 명옥헌 원림은 정원의 초기 형태 외에도 중수나 증건을 새롭게 확인했다. 당초 명옥헌 원림은 오희도와 아들 오이정이 조성한 것으로 혼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역사성 검토 결과 오희도가 은거했

던 망재(忘齋)라는 이름의 서재 인근에 오이정이 조성한 별서임을 확인했다. 이후 영조 25년(1748) 오이정의 손자 오대경이 현감 재직 시절 퇴락한 명옥헌을 중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화순 임대정 원림은 16세기 후반 고반(高彦) 남언기가 조성한 고반원 수문대 옛 터에 철종 13년(1862) 사예(沙里) 민주현이 건립한 정자다. 임대정은 풀이나 갈대 등으로 지붕을 엮은 정자인 초정으로 지어졌으나 이후 허물어졌다. 민주현의 손자 민대호 등이 1922년 중수를 하면서 2칸을 더 지었고 현재의 모습이 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철학자들의 숨겨진 모습

강성률 광주교대 명예교수, ‘고집불통 철학자들’ 펴내

인류에게 삶의 통찰력을 제공한 철학자들의 숨겨진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강성률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펴낸 ‘고집불통 철학자들’(글로벌콘텐츠)은 교양과 흥미를 아우르는 철학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스스로 노벨문학상을 거절한 사르트르, 왕에게 50여 차례나 사직서를 냈던 퇴계 이항 등이 소개돼 있다. 또한 아들을 사형에 처하게 한 복돈, ‘약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며 기꺼이 목베를 마셨던 소크라테스 등도 등장한다. 또한 단칼에 벼슬을 거절했던 장자(莊子)를 비롯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햇빛이나 가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친구인 한비자를 죽게 만든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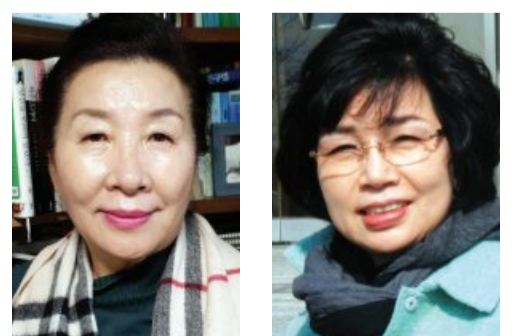


진공실험에 대한 ‘연구실적’을 놓고 서로 싸운 데카르트와 파스칼의 이야기도 들어있다. 신념을 위해 고집을 부리는 철학자 외에도 부와 권력을 위해 양심을 파는 철학자들의 숨겨진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강 교수는 다수의 철학도서를 비롯해 장편소설, 연구논문 등을 집필했다. 지금까지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 ‘철학의 세계’ 등을 펴냈으며 소설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제PEN광주문학상에 박영덕 수필가 선정

작품상에 차행득 시인

제19회 국제PEN광주문학상에 박영덕 수필가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집은 ‘말씀의 우물’. 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이사장 박신영)는 2022년도 제19회 국제PEN광주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말씀의 우물’은 서술성이 뛰어나고 철학적 기반 위에 소통과 공감의 장점을 준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감정의 흐름, 제재 사용의 감각이 풍부하고 행간의 운율이 탁월하다. 착상 단계의 진정성 수사학적 기술 등이 뛰어나다”고 평했다. 박영덕 수필가는 1992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수필집 ‘달걀비꽃에는 상아가 있다’, ‘말씀의 우물’ 등을 펴냈으며 2021년 한국문인협회 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영덕 수필가, 차행득 시인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에는 차행득 시인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민들레 민들레’. 심사위원회는 “민들레의 끈질기고 강인한 삶을 끌어와 독자들에게 강한 의지와 정신을 북돋워주는 시적 자아의 강한 메시지를 높이 샀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